

혼다 재도약 시동… 신차 출시, 온라인 통해 판매구조 혁신

CR-V·어코드 플체인지 모델 등 상반기 2종 하반기 3종 신차 출격
구글 협업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클릭 한번으로 구매·시승까지
온라인 플랫폼 통한 판매 시도
전국 영업사원, 큐레이터로 전환

“올해 5종의 신차 출시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 비즈니스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

혼다코리아가 올해 새로운 플랫폼과 신차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제2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대표는 10일 서울 강남구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국 진출 22주년을 맞은 혼다코리아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혼다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에 대표 SUV(스포츠크리티차량)인 CR-V와 중형 세단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완전변경(플체인지) 모델과 함께 총 5종의 차량을 출시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2023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특히 혼다코리아는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혼다 자동차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과 제품 가격 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 CR-V를 시작으로 2종, 하반기 3종의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며 “4종은 혼다가 가지고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넥티드 서비스는 혼다 앱을 통해 시동을 걸거나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다는 2015년부터 구글과 손잡고 차량용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 혼다의 커넥티드 기술과 구글의 첨단 기술 간의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와 리빙을 원활하게 연결해 소비자와 가까운 차량 내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글로벌 공개를 통해 선보

인 CR-V 플체인지는 혼다 패밀리룩을 따른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 기존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수입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로 혼다코리아의 반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전망이다

혼다코리아는 차량 판매 방식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바로 온라인 판매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차를 구매하거나 시승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폴스타가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도 온라인 판매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차량 판매 구조를 바꾸기 위해 2년간 준비했다. 가장 먼저 딜러사들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했다”며 “과거 영업직원이 차량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구매 후 고객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혼다코리아는 2013년 서울 모터쇼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인 ‘혼다 큐레이터’를 전국 혼다 전시장에 도입한다. 당시 모터쇼에서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차량의 정보에 대한 설명과 상담으로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전국 혼다 전시장에서는 기존 영업사원이 혼다 큐레이터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설명, 시승, 상담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혼다의 전동화 계획도 발표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전체 완성차 생산비율 중 4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5년에는 80%, 2040년까지 모든 제품을 전동화 모델로 변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혼다는 2030년 회계연도까지 전기화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5조엔(약 47조7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통합 출범 5년’ 맞은 현대트랜시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4년 만에 매출 10조… 30% 성장
UAM·PBV 등 신사업 역량 확대

현대트랜시스가 통합 출범 5년차를 맞아 ‘핵심 기술 강화’,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4년간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23년을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내실경영 강화와 UAM·PBV·로보틱스 등 신사업 역량 확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이 통합해 자동차 파워트레인과 시트를 생산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출범했다.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 듀얼클러치변속기, 무



현대트랜시스 미래형 모빌리티 컨셉시트.

단변속기,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 자동차 변속기 전 라인업 생산이 가능한 건 현대트랜시스가 유일하다. 자동차 시트는 소형 세단부터 대형SUV(승용형 다목적차)는 물론 전기차(EV), 목적기반형차(PBV)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

2019년 출범시 7조7000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0% 성장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발표한 2022년 ‘100대 부품사 순위’에서도 32위(국내 2위)에 올랐다.

현대트랜시스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도약도 준비한다.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에 쓰이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솔루션도 갖췄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일체형 구조(3-in-1)의 전기차 구동시스템 ‘e-Powertrain’은 현대트랜시스의 전동화 기술 집약체다.

자동차 시트도 미래 모빌리티를 대비한다. 시트의 경량화를 통해 주행거리 향상을 꾀하고, 고객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트의 움직임, 기능, 형태를 토탈 인테리어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성운 기자

표준 코스 보다 약 20% 줄여준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대신, 세척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씽큐앱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도 확인해준다.

‘야간조용+ 코스’는 야간조용 코스를 강화해 표준 코스보다 3데시벨이나 작은 소리를 낸다. ‘세척 종료음’도 2종에서 12종으로 대폭 늘려 다양한 멜로디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식기세척기 업그레이드 실시

에너지 절감 등 새 기능 10종 추가

LG전자 식기세척기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성능을 높인다.

LG전자는 17일부터 UP가전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트루건조’를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전기 사용량과 소음을 대폭 줄이는 등 새로운 기능 10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씽큐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식기세척기 2만 2000여명 사용자 실사용 데이터 약 38만건을 분석해 개발됐다.

‘에너지 절감 코스’는 전기 사용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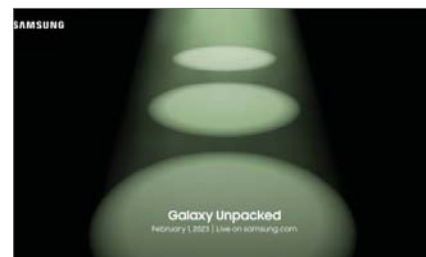
삼성전자, 내달 1일 美서 ‘갤럭시 언팩’

3년만에 대면 행사, 공식 초청장
갤S23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변화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11일 공식 초청장을 전세계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은 갤럭시S23 시리즈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행사를 대면으로 연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 내달 2일 오전 3시 삼성전자 뉴스룸·홈페이지·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초청장은 갤럭시S23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변화를 예고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컨투어컷’이 사라지고 후면에 카메라 렌즈만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 컨투어컷이 사라진 자



삼성전자 ‘언팩 초대장’ 이미지 /삼성전자

리에는 카메라 배열을 단순화한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후면 카메라 배열을 곡선으로 구분한 ‘컨투어컷’을 적용해 왔다. 틱스터들에 의하면 대표 색상으로는 바닐라, 핑크, 그린 등으로 알려졌다.

언팩 대면 행사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1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허정운 기자

고공행진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확대

상반기 보잉 787-9 기종 2대 추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2022년 7월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시작으로 10월 호찌민, 로스앤젤레스 취항에 이어 12월 도쿄까지 취항한 이후 탑승율이 상승세에 올랐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2017년 설립되어 2019년 3월 항공사업면허를 획득한 대한민국의 신생 항공사다. 싱가포르, 호찌민, 도쿄 노선은 주 4회,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주 5회 취항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을 추가 도입하여 총 5대의 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에게 2022년이 국제 여객 노선을 시작하는 한 해였다면,

2023년은 본격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의 해가 될 전망이다. 추가 도입 기재를 활용하여 LA 노선에 이어 뉴욕, 프랑크푸르트, 파리 노선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저비용 항공사(LCC)들과 달리 처음부터 보잉 787-9 대형 기종을 도입하고 있으며, 평균 기령이 2년 이내일 정도로 새 비행기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프리미엄 좌석과 기내 와이파이, 넉넉한 수하물 용량 등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대형 항공사(FSC)에 필적하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최고의 가성비, 가성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평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